

# 예산·국정원 개혁 등 핵심쟁점 '패키지딜' 가능성

양당 지도부 오늘까지 합의점 찾기 분주  
야 "중대한 결심" 여 "과도한 요구" 맞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인 30일을 하루 남긴 29일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협의안을 거부하며 배수진을 차자 새누리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연말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막판 이견 조

율에 나서 최종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

도부 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응답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현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애초 약속한 30 일까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강력한 발언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동안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당내 강경파들의 압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 소속 초선 의원 16명과 능해수위 의원,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 등이 국회 본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여야 이견이 큰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세법 개정안과도 연계돼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시에서 기자간 담회를 하고 김한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요구'로 규정하며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사항을 애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겉어자는 것은 참으로 과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위원회 간사 를 바탕으로 만들고 원내 지도부 협상 결과를 겉어자는 게 민주당식 민주주의인지, 친노식 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오후 2시부터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하고 국정원 개혁 법안, 예산안, 쌀 목표가격, 부동산 대책, 세제개편안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한길 '당혁신' 고삐 '안철수 바람' 잠재운다

내달 공천개혁안 확정...기초공천 폐지 관철 총력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는 대표에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3대 목표로 '더 큰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제시했다"면서 "그동안 정치개혁안에 밀려 혁신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새해에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혁신의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민주당이 무방비 상태로 안 의원이 신당 창당 작업을 지켜볼 경우,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은 더욱 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공천개혁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바일 경선 폐지 등을 통해 돈과 조직을 동원한 경선 풍토를 뇌출해 낸다면 '새정치'를 앞세운 '안철수 신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리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낮춘다

3억 → 1억5천만~2억원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 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과표를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000만원이나 2억원이나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빙자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29일 오후 국회 정보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개혁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운 의원 김광진 의원

국회사무처 '입법·정책 우수' 지역 국회의원 5명 선정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주승용, 이낙연, 김동철, 배기운, 김광진 의원 등이 국회사무처가 제정하고 시상하는 '2013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새누리당 이한구·이명숙 의원과 민주당 강철일·주승용·김우남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은 모두 25명으로 새누리당 안홍준·정희수·김태원·강기윤·문정립·박인숙·유승우·윤명희·이노근·함진규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신계륜·이종걸·김동철·김준진·오제세·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치 관여 공무원 처벌수위 강화

여야, 국정원개혁안 잠정 합의...국정원 직원 최고 징역 7년

정치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

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늘어난다. 군인의 경우는 정치 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만 규정돼 있지만,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확장된다.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가 엄해진다. 이와 함께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공

소시효도 대폭 늘려 공무원에 대해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만 규정돼 있지만,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확장된다.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고치는 등 최소 징역 기간을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 권리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 합의에도 불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국정원 정보관(I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에 따라 최종 합의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 | 062) 651-6581  
의 | 010-3690-7790

##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환수율 대로변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백운동 로터리 대로변 주월동 상업지역 551㎡(167) 병원 등 빌딩적합 대출 12억 매도 2억5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신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 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담양군 순창간 4차선 국도점 관리지역 810평 가든, 전원주택 등 적합 평당 30만원 조정가능함
- 그린벨트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광시가에 매도 3860만원 둘째사옥·아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6000만원
- 모텔, 전복, 부인군 변산면 대지1677㎡(507) 건평 422평 각 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13천
- 임야 무안군 봉암면 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찰적합 건물 험평면 월아면 땅 2657㎡(804) 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용 산 주택과 교환도 가능 5억
- 전남대 신안군 4거리 삼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 평 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쌍촌동에 신축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험평금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험평금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 생활촌(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사무실1,2층  
·높이 : 8m<br